

幸福한 教授生活

柳 達 永

(서울大 名譽教授)

母校에 돌아온 감격

나는 1946년에 서울大 농대에 발령을 받고 1947년 봄에 부임하였었다.

참으로 꿈속인지 생시인지 너무도 벅차서 그때의 心情을 지금도 표현할 수가 없다. 특히 내가 남달리 이렇게 벅찬 심정에 사로잡혔던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첫째는 내가 2차대전 말기에 聖書朝鮮 사건으로 恩師 金敎臣선생님과 함께 西大門형무소에서 고생을 하다가 풀려 나와 8·15 광복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의 요시찰인으로서 나의 一舉一動이 모두 감시를 받아야 했던 신세는 덩에 걸려 아직 죽지 않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半生半死의 형편이었다. 그러던 것이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마음대로 한국말을 하고, 마음대로 한글을 쓰고 읽고, 마음대로 돌아 다닐 수 있는 自由, 참으로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실감하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갔다. 젊은 피가 끓던 25세 때에 開城 奸窳敎女高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무렵은 말 한 마디 글 한 줄을 실얼음판을 밟고 가는 심경으로 조심하면서 민족의식을 少女들의 가슴 속에 심어 주려던 시절이었음을 회고하면서, 지금은 새나라의 農學能들을 가르치는 데 온 情熱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던 참으로 지나간 고생의 긴 세월이 값지게 느껴졌었다.

둘째는 水原農大가 나의 母校인데 내가 母校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감격이었다. 누구나 母校가 있겠지만 水原農大의 前身인 水原高等農林 同窓들처럼 모교에 대한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드물 것으로 믿는다. 그 까닭은 日帝 통치시절에 수원고농에는 東寮라는 한국인들만이 自炊하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이 東寮를 중심으로 하여 在學中의 한국인들은 물론 졸업한 선배들도 즐기차게 民族운동을 전개하여 왔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개척사 사건, 제 2고농 사건, 한글운운 사건 등 해방되는 날까지 민족운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출학당한 선배들, 감옥살이를 한 친구들, 또 옥사한 동지들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학생 집단으로서는 특기할 만한 것이 이 東寮中心의 민족운동이다. 조선인 학생이라야 겨우 30명 안팎의 적은 수였다.

첫새벽에 일어나 집단으로 덴마크 체조를 하고, 전원 축구부원으로 축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농민 교육사업 자금을 의무적으로 염출하여 여러 곳에 강습소를 세우고 밤에는 농촌에 나가서 농민 교육에 정열을 기울였다.

나의 제학시절은 1935년 제 2고농 사건 당시였다. 아직도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의 하나

는 沈熏의 소설 「常綠樹」의 女主人公과의 관계이다. 지금의 京畿道 半月工業단지 속에 있는 샘골(泉谷)에서 농촌계몽운동의 先驅로 목숨을 바쳤던 崔容信양과 손을 잡고 일하였던 일이다. 수원 西湖가에서 그 분과 만나 농촌문제를 이야기하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나는 그의 傳記를 썼고, 그 傳記가 不穩하다 하여 日인들이 전국적으로 압수하였다. 나는 그로 인해서 1년간 獄苦도 치루어야 했었다. 水原農大는 나의 단순한 모교가 아니다. 나의 民族정신의 胎盤이었던 학원이다. 내가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失望하지 않고, 꾸준히 견디면서 살아 오게 된 것은 이 학원에서 덴마크의 復興史를 읽고 덴마크의 民族光復을 志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水原高農은 나의 立志의 요람이었으며 나의 민족정신의 등대이기도 하였다.

내가 日인들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大韓民國의 버젓한 국민이 되었을 뿐 아니라, 母校로 돌아와서 교수의 신분으로 교편을 잡게 된 것이다. 더 없는 감격이었고 더 없는 행복이었다.

나는 高農을 졸업한 후에 10년 동안을 母校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었다. 졸업 당시 내 졸업논문을 담당한 日人 H교수가 나더러 총독부에 가서 농촌계몽운동의 일을 맡아서 하라고 強勸하는 것을 거절한 관계로 H교수로부터 절연을 선고 받았었다. 그 자존심 강한 교수가 나를 세 번씩이나 자기 관사에 불러서 절을 하면서 사정을 하였는데도 나는 나의 농학공부가 결코 H교수를 위해서나 또는 총독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내세웠다. 이러한 연유로 母校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내가 光復의 밝은 하늘 아래 땃땃하게 母校의 助敎授로 부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物心兩面の 시련

오늘의 在學生들이나 젊은 교수들은 해방 직후의 교수생활이 얼마나 物心兩面으로 고달랐는가를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는 衣食의 궁핍이다. 한 달 봉급이 겨우 쌀 몇 말 값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은 많고 봉급 외에 별 다른 수입이 없는 교수들의 생활은 참으로 어려웠었다. 온 가족들이 관사의 정원

을 모두 파 일구어서 강냉이, 감자, 호박 따위를 심어 가꾸어 먹어야 했었다. 이른 새벽 등이 틀 무렵부터 벌써 이 관사 저 관사에서 교수들이 밭에 나와서 김을 메고, 거름 인분등을 메고 다녔다. 나중에는 삶은 감자 먹기에 온 가족이 질러버렸었다.

의복이 또한 말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교수 부인들이 양키시장에서 미군들이 입다가 내다 파는 헌 옷을 사다가 염색하여 교수들에게 입혔었다. 헌 군화를 사서 양화점에 부탁하여 개조해서 신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헌 군용 담요를 사다가 검정물을 들여서 외투를 만들어 입곤 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칫솔도 만들지 못하던 시절이라 미군들이 쓰다 버린 칫솔을 양키시장에서 사다가 비누로 여러 번 빨아서 쓰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어려운 생활을 고생스러워 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패전국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직후에 각 대학은 모두 전문학교들이 기관을 바꾸어 달았을 뿐이고 새로운 시설은 아무 것도 없는 형편이었다. 새로운 문헌도 없었고, 실험도구도 별로 없었고, 연구비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의욕은 크고 연구의 여건은 말이 아닌 실정에서 어려모로 시행착오가 거듭되었다. 따라서 물질양면으로 많은 고생이 따랐었다. 자연 과학을 담당한 교수들은 더욱 그러하였었다.

가장 큰 고통은 서울의 권립전문학교를 京城帝大와 한데 묶어서 서울대학교라는 綜合大學校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산당들의 매후 공작으로 좌익학생들이 소위 國大案 반대투쟁을 벌임으로써 각 대학이 두 패로 나뉘어져 매일 싸움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학장실에 좌익 학생들이 밀려와서 시비를 벌였었다. 교수들 중에는 반공의 불의의 습격에 대비하여 칼을 품고 자는 이들도 있었다.

6·25의 난리를 겪고 난 후에는 대학의 모든 건물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목조건물인 나의 교실은 그대로 빈 터만 남아 있었다. 千辛萬苦로 모아 놓았던 문헌들과 약간의 실험도구들도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서 그대로 無에서 다시 출발해야 했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우수한 교수들이 납치되어 북으로 끌려 간 일이다. 운이 좋게 일부 교수들은 도중에 탈출하여 돌아왔다. 그런데 평소 성당에 열심으로 다니면서 기독교인으로 위장하고 지냈던 공산당원 교수들이 적지 않았던 사실에 모두가 아연하엿었다.

6·25 전쟁 때에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모두 남으로 피난갔고, 학생들은 총을 메고 전선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戰時中이어서 군인들 외에는 한강을 건너 서울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까닭에 수원 농대의 폐허에서 서울대학교의 각 단과대학 대학생들이 거적을 깔고 강의를 들어야 했었다. 농대에서 원예학을 담당하고 있었던 내가 人文 관계의 몇 과목을 담당하여 강의하고 학점을 주기도 하였었다. 오늘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역사적 시련기였었다.

專攻의 변천

지금의 교수들은 누구나 처음부터 자신의 전공분야의 과목을 맡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참으로 행운아들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학생들은 일정한 필수 전공의 학점을 마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과목을 맡아 가르칠 교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배에 따라서 전공 외의 여러 과목을 본의 아니게 맡아서 가르쳐야 했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역경에서 교수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예학을 담당한 내가 문리대, 법대, 사범대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까지 상대로 문화사, 교육학 등의 강의를 맡아야 했었다.

농대에서 나는 채소원예학 범론, 작론; 화훼원예학 범론, 작론; 채소채종학; 육종학 등 광범한 강의를 맡아서 했었는데 나의 후배와 학위를 받고 돌아온 제자들이 희망하는 데로 내주었다. 오직 미학의 수준을 하루라도 빨리 높여 가자는 일념뿐이였었다. 그런데 화훼원예학만은 내가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맡았었다. 이 분야의 강의를 맡을 사람이 한국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1956년 미네소타대학과 코넬대학에서 나는 화

훼원예학을 공부하고 돌아왔었다.

나는 처음에 난초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네소타에서 코넬로 옮겨 갔었다. 蘭의 無菌繁殖法을 발명하여 蘭을 오늘에 세계적으로 대중화하도록 만든 Knudson 교수가 정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명예교수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가 나를 自進하여 맡아서 가르쳤다. 참으로 幸運兒였었다. Knudson 교수는 화훼원예학에서는 그 당시 彗星과 같은 존재였었다.

나는 歸國하여 몇 해 동안 蘭의 연구를 해보려 고자 피나는 노력을 했었으나 연구의 뒷받침이 전혀 없어서 결국 방향을 바꾸어야 했었다.

나의 始終一貫한 연구는 무궁화에 대한 것이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國花이기 때문에 무궁화의 육종과 연구는 한국인인 나의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한국잔디의 연구였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또 유럽 각국을 시찰하는 동안에 잔디야말로 세계성을 지닌 식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잔디는 여러모르 장점이 많다는 것을 외국에 나가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잔디의 생리와 특히 종자번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한국잔디는 재료도 많고 또 연구 업적이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한국의 잔디씨를 日本과 美國 등 여러 나라에 계속 輸出하게 된 것은 우리 교실의 연구 업적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무궁화의 特有한 flowering 期와 나무꽃 없는 온대지방의 유독 여름철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育種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오늘 수원 농대에는 30년 동안의 수집과 육종의 결과 많은 무궁화 品種이 있다. 세계적 수준이다. 또 연구 업적도 외국에 뒤지지 않게 되었다. 오래지 않은 장래에 무궁화 江山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믿는다.

지금은 내가 停年이 되어 大學에서 물러나 있으나, 마음든든한 것은 내 연구의 後繼者를 길러 놓고 물러 나온 일이다. 무릇 연구는 즐기치게 계승되어 나가야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물러날 때에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아물없이 죽어가는 사람보다도 더 허전한 일이라고 믿는다.

나의 教育觀

교수는 학자이기 이전에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信念이며 고집이다. 학자는 전문분야의 학문의 권위만으로 족하지마는 교수는 학자이면서 교육자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와, 학자와, 기술자는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교수가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까닭은 교육자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인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자부심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교수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인간적 권위라고 하겠다.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훌륭한 교수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항상 이 점에서 자신을 부끄러워 해 온 사람 중의 하나이다.

나는 日本통치시대에 開城 호수돈女高에서 6年間 교편을 잡았을 때에도 또 光復 후 30년간 수원 農大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에도 내 과목의 시험만은 한결같이 감독 없이 치루어 왔다. 다소의 폐가 있더라도 교수가 학생을 믿어 주고, 또 학생들도 自律히 나가는 정신을 자신들이 걸러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信念이다. 무감독의 내 과목의 시험 시간에 가장 험잡이 적었다는 것은 設問이나 학생들과의 간담에서도 밝혀졌다.

한번은 채점한 시험 답안을 돌려 주었는데 한 학생이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抗議를 해 왔다.

점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시험이 두 문제였는데 첫 문제만 쓰고 둘째 문제는 白紙였었다. 내가 그것을 80점을 주었던 것이다. 學生의 의견 으로서는 50점이라면 승복을 하겠는데 80점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그 답안을 학생들 앞에서 들어 보이면서 첫 문제를 30점, 둘째 문제 白紙를 50점으로 채점해서 합계 80점이 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학생 일동이 모두 폭소를 했었다. 나의 채점의도는 감독도 없는데 노트나, 참고서나 마음대로 펴놓고 쓸 수도 있고, 또는 친구 답안을 보고서 쓸 수 있었을 터인데, 白紙를 내 놓은 것은 인간적으로 50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가 믿게 된 것이다.

교육의 최종의 목적은 그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훌륭한 人間을 길러 내는 일 以上の 것이 아니다.

人間性을 잃은 학문, 人間性을 잃은 技術, 그것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人類의 복지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는 없다. 그러한 학문과 기술은 발달하면 할수록 人類를 悲劇으로 몰아 넣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인간은 教育을 넘어설 수는 없다. 한 나라도 교육 이상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百萬事는 모두 인간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 인간은 결국 교육의 産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論理로 해서 教授는 學者보다도 技術者보다도 優位에 있고, 또 시대를 넘어서서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지만은 진정한 교수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